

DMZ일대 강화군지역 식물수집 및 조사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2015)

배 찬 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립DMZ자생식물원에 도입할 식물의 수집과 서식처 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강화군 지역의 본섬인 강화도를 포함한 민간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주변 9개의 유인도를 대상으로 40분류군 50,000개체 이상의 식물수집과 서식처조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집된 식물은 계목, 버들금불초 등 43분류군이었으며 수량은 5,259개체였다. 수집된 희귀식물은 계목(EN), 햇사초(DD), 버들금불초(VU)의 3종이었으며, 특산식물은 햇사초가 포함된다. 본 연구의 조사지에서 출현한 식물은 74과 187속 247종 3아종 34변종 3품종 총 288분류군이었으며, 희귀식물로는 계목(EN), 왕둥굴레(EN), 외잎쭈(VU), 버들금불초(VU), 금강제비꽃(LC), 말나리(LC), 꽃창포(LC), 모새달(LC), 두루미천남성(LC), 햇사초(DD) 등 10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특산식물로는 은사시나무, 새끼노루귀, 진퍼리노루오줌, 지리대사초, 햇사초 등 5분류군이 출현하였다.

I. 서 언

비무장지대는 60여년간 생태계가 보전되어왔으며, 한반도 중부권의 고유한 식생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 김포시와 강화군은 한강 및 임진강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풍부한 저층습지를 가지는 지역이며, 서해안지역의 특성을 가지므로 해안식생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강화군은 최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교동도에 연육교가 연결되면서 자생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어 가고 있다. 국립DMZ자생식물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DMZ인근지역의 자생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면밀한 조사와 수집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MZ인근지역인 김포시와 강화군의 자생식물에 대한 조사와 수집을 통하여 국립DMZ자생식물원의 체계적인 식물도입, 보전,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와 이력관리된 식물의 수집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